

동사 ‘눅다’에 대한 통시적 고찰*

신은수 (전북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눅다’의 의미 특성 |
| 2. 15세기 ‘눅다’의 통사·의미 | 5. 맺음말 |
| 3. ‘눅다’의 통시적 변화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15세기 ‘눅다’의 통사-의미를 살피고 통시적 변화를 기술한다. 아울러 15세기 ‘눅다’의 의미 관계, 통시적 의미 확장 양상, ‘눅다’의 의미 특성을 밝힌다.

‘눅다’는 15세기부터 ‘NP이 눅-’, ‘NPpl이 (서르) 눅-’, ‘NP1이 NP2에 눅-’ 구문을 보인다. 통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 전반부터 ‘NP이 눅-’ 구문에서 ‘NP’에 사람명사가 쓰인다. 둘째, 15세기에는 복수 주어 명사가 주로 ‘N1과 N2와’로 실현되지만, ‘N1N2’와 같은 병렬구조로 드러나는 예도 있다. 셋째, 15세기 ‘NP1이 NP2에 눅-’ 구문에서 ‘NP1’과 ‘NP2’는 추상명사가 대부분이다. 넷째, 20세기 전반에 ‘NP1이 NP2에게 눅다’ 구문이 보이는데, ‘NP1’과 ‘NP2’는 사람명사이다.

15세기에 ‘눅다’는 [액체화]를 기본의미로 하여, [소멸화], [융합화], [원형화]라는 파생의미를 갖는다. 여기에 18세기에 [현혹화]라는 의미가 추가된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1270).

통시적으로 ‘늑다’는 논항 명사가 확장되고 개별의미가 늘어난다. ‘늑다’의 의미 특성은 문맥, ‘노가 V’ 구성, 비유 표현 등을 통해 살폈다. ‘늑다’는 [액체화]라는 의미를 갖는 거의 유일한 동사로, 주로 [변화], [소멸] 동사와 유의 관계를 보인다.

주제어: ‘늑다’, ‘NP이 늑-’, ‘NPpl이 (서르) 늑다’, ‘NP1이 NP2에 늑-’,
[액체화], [소멸화], [융합화], [변화], [소멸]

1. 머리말

본고는 15세기 ‘늑다’의 통사·의미를 살피고, 의미 간의 관계를 밝힌다. 아울러 통시적 관점에서 ‘늑다’의 통사·의미 특징을 기술하고, ‘늑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늑다’가 갖는 의미 특성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본 연구는 어휘사 연구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어휘사는 개별 어휘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집성될 수 있다. 둘째, 어휘사 연구에서 특이한 변화를 겪거나 소멸한 어휘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오랜 시간을 형태 변화하지 않고 굳건히 기본어휘로 자리 잡고 있는 어휘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늑다’는 형태 변화 없이 중세국어부터 현대국어까지 기본어휘로 자리하고 있으며, 의미 파악이 어려운 단어가 아니어서 자칫 소홀히 하거나 특정 사실을 놓치기 쉽다.¹⁾ 형태 변화 없는 기본어휘는 통사·의미

1) 황국정(2009)는 15세기 동사의 구문구조를 통시적으로 연구한 최근의 논의로, 약 900개에 달하는 고유어 동사를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방대하다. 황국정(2009)에서

면에서 현대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녹다’는 기본적으로 고체가 액체가 되는 사건을 가리키는 동사이다. 즉, [액체화]를 기본의미로 하는 유일한 동사이며, 의미 확장도 활발한 동사이다. 빈도나 어휘 체계상의 위치로 볼 때 중요한 단어임에 틀림없지만, 국어사에서 특별히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²⁾ 이상적인 어휘사 기술은 발음·표기·품사·문법·의미·어원 등의 정보가 총망라되어야 한다(민현식 1995)는 관점에서 기본어휘에 대한 어휘사적 연구는 국어사 연구에 필수적이다.

본고는 15세기 ‘녹다’의 통사의미를 기술한다. ‘녹다’는 중세국어에서부터 현대까지 형태 변화가 없어 통사의미가 주된 관심사가 되기 때문이다. 통사 구조에서는 구문과 논항의 선택 특성을 제시한다. ‘녹다’의 의미는 대상역 명사에 따라 개별의미를 세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 관계를 파악한다. 그리고 ‘녹다’를 통시적으로 살펴 ‘녹다’의 통사의미 특징을 기술하고, 의미 확장 양상을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맥, ‘노가 V’ 구성, 비유 표현을 살펴 피고, 유의어와 비교하여 ‘녹다’의 의미 특징을 기술한다.

‘녹다’는 ‘대상 자동사’ 중 ‘단순 변화 대상 자동사’로 ‘NP이 V’라는 격틀을 갖고 구문이 변하지 않는 동사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15세기에 ‘녹다’는 ‘NP이 녹다’ 이외에도 ‘NP1이 NP2에 녹다’로 실현된다. 게다가 황국정(2009)의 격틀 유형에 따르면 여기에 ‘NPpl이 서르 녹다’도 추가할 수 있다(본고 2.1. 참고). 그런데 ‘NP1이 NP2에 V’나 ‘NPpl이 서르 V’에 ‘녹다’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녹다’의 구문을 피상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혹시 황국정(2009)가 동사가 갖는 대표적인 구문만 제시한 것이라면 동사 구문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다.

- 2) 유창돈(1973), 김태곤(2002, 2008), 홍사만(2003) 등의 어휘사나 어휘의미사 관련 논문에서 ‘녹다’는 찾아보기 어렵다. 황국정(2009)에서는 ‘녹다’의 구문 정보만 볼 수 있다(각주 1 참고). 그런데 ‘녹다’는 문법사에서도 중요한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15세기 ‘V아디다’류 어휘의 선행 용언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거나 타동사인 데(예: ‘물어디다>무너지다, 뼈러디다>떨어지다’ 등), ‘녹다’는 기본어휘이며 자동사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는 ‘-아디다’에 초점을 두었고, 문법 영역에서 다루었다. 따라서 ‘V아디다’류 어휘의 선행 용언에 대한 어휘사적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 용언이 어떤 공통점을 지니는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선행 용언과 후행 용언 ‘디다’가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녹다’가 쓰인 예는 국립국어원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축적한 ‘21세기 세종계획’의 어휘 역사 자료를 토대로 ‘통합형 한국어 처리 프로그램 (SynKDP)’을 이용하여 검색한다. ‘21세기 세종계획’의 어휘 역사 자료는 15세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를 대상 시기로 삼되,³⁾ 필요에 따라 20세기 후반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2. 15세기 ‘녹다’의 통사의미

2.1. 15세기 ‘녹다’의 통사 구조

‘녹다’는 자동사로, ‘NP이 녹다’ 또는 ‘NPpl이 (서르) 녹다’ 그리고 ‘NP1이 NP2에 녹다’ 구문을 보인다. 해당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며, 이 시기 ‘녹다’가 갖는 통사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 (1) ㄱ. 그 돈이 즉재 녹느니라(其錢卽化)<구급방언해上:53a>
 ㄴ. 慧日이 다 도드면 서리와 이슬왓 惑이 漸漸 노곶 곤흐며(如慧日頓出 霜露之惑漸鎖)<원각경언해, 상1-1:111a>

(1)에서 ‘녹-’ 앞에 ‘즉재, 漸漸’ 등의 부사가 쓰였고, (1ㄱ)에서는 ‘-느-’가 결합하였다. 그리고 ‘NP이 녹다’라는 구조를 보이므로 ‘녹다’는 자동사이다.

‘NP이 녹다’ 구문에서 ‘NP’는 ‘대상’ 의미역으로 해석된다.

- (2) ㄱ. 어르미 노그면(冰消則)<목우자수심결언해, 10b>
 ㄴ. 洋銅은 노근 구리라<월인석보21:75b>

3)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연구할 때 흔히 20세기 후반 이후의 언어 현상을 다루는데, 현대국어 ‘녹다’에 대한 공시적 연구는 따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20세기 후반은 자료도 방대하므로 ‘녹다’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이 시기만 따로 기술하여 연구 내용을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㉔. 흘기 노ㄴ니 저비 놀오(泥融飛燕子)<두시언해(초간)10:17a>
- ㉕. 이 사긴 쁘들 보면 疑心이 노가(見此解義하면 疑心이 釋然하야)<금강경언해,序6b>
- ㉖. 法界 흐마 두러이 노곤디라(法界 | 既以圓融이라)<선종영가집언해 下:118a>

(2)에서 보듯 대상역 명사에는 ‘어름’, ‘구리’, ‘흙’ 등의 구상명사에서 ‘疑心·法界’ 등의 추상명사까지 쓰인다. 그리고 (2)의 대상역 명사는 대체로 단수 명사로 실현된다.

그런데 ‘NPpl이 (서르) 녹다’ 구문처럼, ‘녹다’의 대상역 명사가 복수 명사로 실현된 예가 있다. 이 구문에서 발견되는 복수 주어는 일반적으로 ‘N1과 N2 와’로 실현된다.

- (3) ㉗. 身과 智와 노가 ㄴ린 디 업스면(身智 | 融無礙하면)<육조법보단경언해 中:76a>
- ㉘. ㅁ슴과 境과 노가(心境이 雙融하야)<능엄경언해7:22a>
- ㉙. 性과 相과 서르 노ㄴ며(性相이 相融하며)<금강경삼가해5:9a>

(3)은 각각 ‘身과 智와’, ‘ㅁ슴과 境과’, ‘性과 相과’가 ‘녹다’의 주어로 쓰였다. 특히 (3㉘, ㉙)은 ‘둘히, 서르’ 등이 쓰여 주어가 복수임을 뚜렷이 나타낸다.

복수 주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제시된다. ‘一切’ 등의 복수를 나타내는 말이 주어로 쓰이거나 단수 명사 앞에 복수를 의미하는 수식어가 결합한다.

- (4) ㉚. 妙法 實^은 ㄴ순 一切 두러이 노가 물와 我와 노히디 아니하며(妙法 實際는 一切圓融하야 物我 | 不分하며)<법화경언해4:133a>
- ㉛. 모든 類의 覺性이 通히 노가 둘 아닌 전츠로(諸類覺性이 通融不二故로)<능엄경언해10:49b>
- ㉜. 세 가 ㄴ치 世間이 노가 ㄴ름 업스 전치니(三種世間이 融無礙故 | 니)<원각경언해,상2-2:153a~153b>

(4ㄱ)은 전체를 가리키는 ‘一切가 주어로 쓰인 예이다. (4ㄴ, ㄷ)에서 ‘녹-’의 주어 ‘모든 類의 覺性, 세 가짓 世間’은 복수 명사이다. 수식어 ‘모든 類의, 세 가짓’이 피수식명사를 복수로 만든다.

복수 주어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방식은 현대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주목할 만한 특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5세기에는 ‘N1N2’의 병렬 구조로도 실현된다. 이때 ‘N1’과 ‘N2’는 서로 상반된 개념을 나타낸다.

(5) 有無 | 호마 노가(有無 | 旣融호야)<선종영가집언해下:102b>

(5)의 ‘有無’는 ‘N1N2’ 구조의 복수 명사이다. (5)의 ‘有無’가 병렬구조 ‘N1N2’의 복수 명사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첫째, ‘N1과 N2와’와 같이 접속 구성으로 나타나는 예가 있다.

(6) ㄱ. 根境이 두려비 노골씩<월인석보18:42a>

ㄴ. 根과 境과 두려이 노가(根境이 圓融호야)<능엄경언해6:30a>

(6ㄱ)의 ‘根境’은 ‘N1N2’, (6ㄴ)의 ‘根과 境과’는 ‘N1과 N2와’ 구조를 보이는 예이다. 실제로 15세기 ‘NPpl이 (서르) 녹다’ 구문에서 발견되는 복수 주어는 (6ㄴ)과 같이 ‘N1과 N2와’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N1N2이 서르 녹다’와 같이 부사 ‘서르’가 쓰여 주어 명사가 복수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7) ㄱ. 色心이 서르 노가 서르 막디 아니홀씨라<능엄경언해8:25b>

ㄴ. 有無 | 서르 노골씩 닐오디 不二라(有無 | 互融홀시 謂之不二라)<선종영가집언해下:102a>

따라서 (7)에서 ‘色心’⁴⁾이나 ‘有無’는 단수 명사라기보다 ‘N1N2’ 구조의 복수 명사로 보아야 한다.

4) ‘색법(色法)과 심법(心法)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곧 물질과 마음(『표준국어대사전』).

‘녹다’의 대상역 명사가 ‘N1N2’의 병렬구조를 보이는 예는 대체로 불경언해서에 한정된다. 또 불경언해서에서는 부사 ‘두려이’가 관용적으로 쓰여 의미를 강화하기도 한다.⁵⁾ 이러한 문법적, 의미적 특징은 불교 개념을 언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NP1이 NP2에 녹다’ 구문도 보인다.

- (8) ㄱ. 小乘은 法에 녹디 못호야(小乘은 於法에 未融호야)<법화경언해5:15b>
 ㄴ. 모든 相이 非에 드러 能과 所왜 다 업수민 寶明空海에 노고미라(諸相이 入非호야 能所 | 皆盡은 蓋融於寶明空海也 | 라)<능엄경언해 5:51b~52a>

(8)에서 ‘NP에’ 자리에는 ‘法, 寶明空海’⁶⁾처럼 진리나 참된 세계와 같이 원만하고 완전한 것이 쓰인다. ‘NP1이 NP2에 녹-’ 구문에서 ‘NP2에’는 ‘장소’의 의미역을 지닌다. 이때 ‘녹다’는 [융합화]라는 의미를 드러낸다.

이와 같이 15세기에 ‘녹다’는 주로 불경언해서에서 ‘추상명사의 합일’을 드러낼 때 ‘NP1이 NP2에 녹-’ 구문을 보인다.⁷⁾ 이러한 특징은 현대국어 ‘NP1이 NP2에 녹다’ 구문의 대표적인 예로 ‘소금이 물에 녹다’를 떠올릴 때, NP1은 고체 상태의 구상명사, NP2는 액체 명사가 쓰이는 것과 대조적이다.⁸⁾

5) ‘두려이 녹-’는 불교 용어 ‘원융’(圓融)에 대한 언해로, 주로 15세기 불경언해서에 나타난다. 예) 根境이 두려이 노고몰 브트실씩(由根境이 圓融호실시)<능엄경언해 6:6b>, 空과 覺과 두려이 노가(而空과 覺과 圓融호야)<능엄경언해6:54a>. ‘원융’은 불교 용어로 ‘걸림이나 구별 없이 원만하여 하나로 융합되는 것’을 말한다. ‘문화원형 용어사전’(문화콘텐츠.COM)에 ‘모든 법의 사리가 구별 없이 널리 융통하여 하나가 되다. 걸리고 편벽됨이 없이 가득하고 만족하며,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서로 융합하므로 방해됨이 없는 것을 원융이라 한다’라고 풀이되어 있다.

6) 보명공해: 일진법계. 화엄종의 용어로 오직 하나인 참된 세계, 또는 절대 무차별의 우주의 실상(장세경 1997).

7) 불경언해서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서로 어우러지다 또는 이것과 저것의 경계가 없는 상태에 이르다’라는 경전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다.

8) 물론, ‘NP1이 NP2에 녹다’ 구문은 현대국어에서도 ‘한 편의 글에는 글쓴이의 지식이나 경험이 녹아 있다.’(『표준국어대사전』)처럼 고체와 액체의 합일이 아닌

15세기에도 고체 상태의 구상명사가 액체 속에 섞이는 예가 존재한다.

- (9) ㄱ. 밀 탄즈만치 혼 나출 수레 녀허 녹거든 머그라(蠟蜜 如彈丸一枚置酒中消乃飲)<구급간이방언해2:57b>
ㄴ. 빅변 반 근을 물 혼 말 반에 글혀 녹거든(礬石빅변 半斤以水一斗半煮消)<구급간이방언해1:44a>

(9ㄱ)은 ‘밀’¹⁰⁾을 ‘술’에 넣었으므로, 밀줄 친 ‘녹거든’은 ‘밀이 술에 녹-’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15세기에는 고체 상태의 구상명사가 액체에 섞인다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NP1이 NP2에 녹다’ 구문이 표면적으로 직접 드러난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문맥을 통해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또 15세기 ‘NP1이 NP2에 녹다’ 구문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쇠가 불에 녹았다’처럼 ‘NP2에’가 ‘도구’의 의미역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런데 15세기에 ‘도구’의 의미로 쓰인 ‘NP2에’는 비유 표현의 일부 예에서만 나타난다.

- (10) ㄱ. 이 곧 혼 한業이 더운 브레 눈 녹듯 혼야(如是積業如湯消雪)<영험약초,13b>
ㄴ. 幻化 곧 혼 六塵이 더운 브레 어름 노곰 곧 혼리니(幻化六塵이 如湯消冰 혼리니)<목우자수심결언해,25b~26a>
ㄴ'. 千 蠶 疑心이 어름 노곰 곧 거뇨(千重疑滯 | 類冰澆 | 어뇨)<원각경언해,하3-2:97a>

(10ㄱ, ㄴ)은 ‘NP이 더운 브레 눈 녹듯 혼-’와 ‘NP이 더운 브레 어름 노곰

추상명사의 합일에도 쓰인다.

- 9) 본고의 내용은 2016년 8월 국어문화회·한민족어문화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때 토론을 맡아 주신 공주교대 김현주 선생님은 이 예에 쓰인 ‘녹다’를 [융합화]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다.
10) ‘밀’은 ‘봉랍(蜂蠟)’으로 ‘벌집을 만들기 위하여 꿀벌이 분비하는 물질, 누런 빛깔로 상온에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성질이 있다’(김문웅 2004).

곶ㅎ-'로 쓰였다. 이 두 구조에서 안긴문장 '더운 뜨레 눈/어름 녹-'가 'NP1이 NP2에 녹-' 구조를 보인다. 이때 'NP에'는 녹이는 도구의 개념으로 '더운 물'이 쓰였다.¹¹⁾ 이는 일반적으로 15세기 문헌에서 녹이는 도구(또는 방법)에 해당 하는 내용은 'VP'로 나타나는 것과 차이가 난다.

- (11) ㄱ. 瑠璃는 프른 비젷 보비라 혼 쁘디니 브레 드러도 녹디 아니ㅎ느니라<월인석보1:22a>
 ㄴ. 솜 안해 밀 녀허 쓴 브레 달효디 미리 녹거든 沙 합에 부서 뜰 제 (鎔內入蠟慢火熬候蠟消)<구급방언해下:10a>
 ㄷ. 소오매 혼 환곰 빠 머구머 녹거든 솜끼라(縣裏一丸含化熨津)<구급간이방언해2:12a>

(11)은 '유리, 밀(蠟), 환' 등의 명사가 '녹'는 구체적인 방법이 [브레 드러도], [쓴 브레 달효디], [머구머] 등과 같이 동사구로 나타난 예이다. 그리고 (11ㄴ, ㄷ)과 같이 선행하는 동사구가 타동사구일 때 '녹-'는 대체로 '녹거든'으로 실행된다.¹²⁾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녹다'가 갖는 통사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³⁾

- 11) 일반적으로 물체는 '열'이나 '습기'로 녹는다. 이 '열'이나 '습기'는 현대국어에서 'NP1이 NP2에 녹-'에서처럼 'NP에'로 실현이 된다. 그런데 15세기 문헌에서 녹이는 방법이 'NP에'로 실현되는 예는 (10)에서처럼 'NP이 더운 뜨레 눈 녹듯ㅎ-'와 'NP이 더운 뜨레 어름 노곰 곶ㅎ-'와 같은 비유 구문에서만 나타나고, 열과 습기가 동시에 작용한 '더운 물'로 한정되어 나타난다.
- 12) '녹거든'의 선행행절은 모두 타동사로 실현된다. 말하자면 'VP1 녹거든 VP2'로 나타난다. 이때 '녹-'는 선행행 동사와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어 순차적으로 사건이 일어남을 드러내지만, 보통 '[VP1], [녹거든 VP2]'와 같이 후행행절의 조건절로서의 기능에 더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녹거든'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타동사 '녹이-'가 쓰인다. '녹이-'는 선행 동사구의 동사와 같이 타동사이므로 선행 동사구와 대등한 자격을 가져 활용형에 제한이 없이 쓰인다.
- 13) 앞서 'NP이 (더운 뜨레) 눈/어름 녹듯ㅎ-' 또는 'NP이 (더운 뜨레) 눈/어름 노곰 곶ㅎ-'와 같은 비유 표현은 <표 1>에 제시하지 않았다. 비유 표현에서 안긴문장 'NP1이 NP2에 녹-'는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유 표현 전체는 '녹다'가 직접적으로 서술어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본고는 '녹다'의 통사의미를 중점적으로 살피기 때문이다.

<표 1> 15세기 ‘늑다’의 통사 구조

품사	동사(자동사)	
구문	NP의 선택 특성 ¹⁴⁾	
① NP이 늑다	① 눈, 얼음, 서리 등의 얼음류 명사	구상명사
	② 유리, 구리 등의 쇠류 명사	
	③ 흙 …	
	④ 의심, 業障 등의 부정적 개념	추상명사
	⑤ 法界, 覺 등의 긍정적 개념 또는 ‘밀’(蜂蠟) 등의 구상명사	추상명사 (일부 구상명사)
② NPpl이 (서르) 늑다	NPpl: ‘N1과 N2와’ 또는 ‘N1N2’ 등. ‘有無, 色心’ 등의 불교 개념	추상명사
③ NP1이 NP2에 늑다	NP1 · NP2: 주로 불교 개념 NP1: 小乘 …, NP2: 法 …(진리나 참 세계)	

2.2. 15세기 ‘늑다’의 의미

‘늑다’의 의미는 먼저 대상역 명사의 성격에 따라 개별의미를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 관계를 설명하기로 한다.

‘늑다’는 ‘고체가 액체로 되다’라는 의미를 기본의미로 한다. 고체 상태의 물질이 액체 상태로 바뀌는 대표적인 예로는 ‘얼음’이나 ‘쇠’ 등의 명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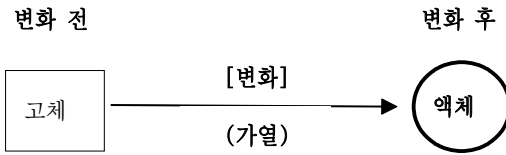
14) 한 심사위원께서, ‘NP의 선택 특성’으로 ‘의미적 기준’이나 ‘문법적 특성’을 제시했다기보다 결합하는 명사를 나열한 것에 가깝다는 지적을 해 주셨다. 그런데 <표 1>에서 ‘③ 흙’이나 ‘④ 의심, 業障’ 등은 해당 예가 적고, 명사 논항도 제시한 단어에 한정되어 있어서 선불리 일반화하기가 조심스러웠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명사 나열에 그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5세기라는 시기적, 문헌적 제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필자로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다.

(12) ㄱ. 巴東^ㅅ 山峽엔 어름 노근 ㅁ리 나느니(巴東之峽生凌澌)<두시언해
(초간)10:42a>

ㄴ. ㅁ^ㅁㄹ^ㅁ거든 ㅁ리 노근 ㅁ를 ㅁ시노라<월인석보23:87a>

(12)는 ‘어름, ㅁ리’ 등이 ‘녹다’의 대상역 명사로 쓰였다. (12ㄱ)은 얼음이 물로, (12ㄴ)은 ㅁ리가 흐물흐물한 액체 상태로 바뀐다. (12)는 고체가 녹은 후의 상태가 ‘ㅁ’(액체)로 직접적으로 나타난 예이다. 이렇게 ‘녹다’는 얼음이 든 ㅁ타 딱딱한 고체든, 물이 되거나 흐물흐물한 액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액체화]¹⁵⁾라고 하자.

<그림 1> ‘녹다’의 의미 도식: [액체화]



그런데 ‘어름, 눈, 서리’ 등은 ‘물’을 주성분으로 하되 얼어 있는 고체 물질이다(12ㄱ). 반면 ‘ㅁ리, 거우루’ 등은 물이 원재료가 아닌 단단한 고체 물질이다(12ㄴ). 전자는 ‘얼음’류 명사, 후자는 ‘쇠’류 명사로 구별하기로 한다.

15) 정확히는 ‘고체의 액체화’가 맞겠지만 편의상 ‘액체화’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액체화’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과학적으로 액체가 되는 경우는, ‘고체→액체’와 ‘기체→액체’ 두 경우가 있다. 그리고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를 ‘융해’(融解), 기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를 ‘액화’(液化)라고 하여 둘을 구별한다. 따라서 본고의 ‘액체화’라는 개념은 기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를 가리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녹다’가 드러내는 사건은 ‘융해’를 가리키고, 일상생활에서 ‘기체의 액체화’를 인식하거나 특히 ‘기체 상태’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따라서 ‘고체의 액체화’로 명시하거나 ‘융해’라는 전문용어를 쓰지 않았다. ‘녹다’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액체화’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무난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얼음’류 명사에 대한 ‘녹다’의 반의어는 ‘얼다’이고, ‘쇠’류 명사에 대한 ‘녹다’의 반의어는 ‘굳다’로, 반의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 ‘얼음 녹다’와 ‘뼈 녹다’가 비유 표현에 쓰일 때 일정한 경향이 보여 얼음류 명사와 쇠류 명사를 구별하는 것이 유용하다(4.1. 참고).

(13) ㄱ. 눈과 서리와 다 녹거늘 퍼런 보물 보도다(雪霜이 消盡커늘 見青春이로다)<남명집언해下:61b>

ㄴ. 거우루는 었테 녹디 아니호느뇨(鏡은 何不鎔고)<능엄경언해3:75b>

‘녹다’는 추위로 얼었던 것이 원래 상태가 되는 경우에도 쓰인다([원형화]).

(14) 흙기 노그니 저비 늘오(泥融飛燕子)<두시언해(초간)10:17a>

(14)에서 ‘흙’(土)은 얼었다가 풀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흙은 물을 머금고 있어 실제로는 물이 얼어서 흙이 얼음처럼 단단해진다. 이 흙이 열을 받으면 물이 녹으면서 흙도 원래 상태로 되 돌아온다.

이런 의미로 쓰인 ‘녹다’는 개별의미로 책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 첫째, 얼음류나 쇠류의 명사 부류와 다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얼음류나 쇠류는 고체 상태의 대상역 명사 자체가 물이나 액체 상태로 변하지만, 흙류는 대상역 명사 자체는 그대로 있다. 둘째, 근대국어 시기에는 몸이나 신체 일부를 나타내는 명사들이 더 나타나는데, 이들은 이 의미와 동일한 개념을 드러낸다.

[원형화]는 고체 상태의 물질이 물을 머금고 있어 그 물이 얼었다 녹는 것으로, 이 과정은 ‘얼음’이 녹는 것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흙이 녹다’는, 흙이 물과 함께 얼어 딱딱해진 상태에서, 물이 녹으면서 흙은 본래의 부드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녹는’ 것은 흙이 아니라 ‘물’이므로 ‘흙이 녹다’는 인접성에 의한 환유 표현이라 할 만하다. 다만, 얼음이나 쇠류와 같은 고체가 열로 녹을 때는 액체 상태가 되고, 고체 ‘형체’는 사라진다. 그러나 ‘흙’이 ‘녹을’ 때는 흙이라는 원물질은 그대로 존재한다는([형체 보존]) 데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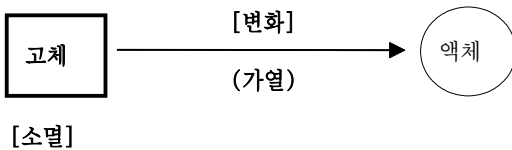
또 ‘눅다’는 추상명사와 같이 쓰여 ‘없어지다’([소멸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 (15) ㄱ. 後賢 學者 | 經을 닐거 疑心 잇느니 이 사긴 ㅸ들 보면 疑心이 노가
 ㄴ의 訣을 ㅸ디 아니호리니<금강경언해,序6b>
- ㄴ. 眞實로 能히 精히 通호면 한 疑心이 自然히 노그리라(苟能精通호면
 群疑 | 自釋호리라)<원각경언해,상1-1:10b>

(15)는 ‘疑心’이 ‘눅다’의 대상역 명사로 쓰였다. 이때 추상명사는 주로 부정적인 개념을 드러낸다. 여기서는 ‘눅다’가 ‘없어지다, 풀어지다’라는 뜻이다. 의심이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해가 되는 것이므로 (15ㄴ)에서는 ‘눅다’가 한자 ‘釋’에 대응하고 있다.

‘눅다’가 갖는 [액체화]와 [소멸화]의 관계를 파악해 보자. 구상명사에 적용되던 [액체화]의 의미가 추상명사에 적용되어 [소멸화]라는 의미를 얻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도식이 전제된다.

<그림 2> ‘눅다’의 의미 도식: [소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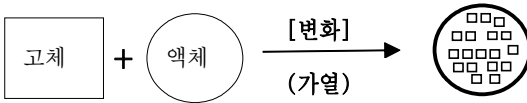


즉, 얼음이나 쇠가 녹아 액체가 될 때, 고체 상태인 원물질의 ‘형체’는 일그러지거나 사라진다([소멸]). 실제로 [액체화]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할 뿐 구성성분은 동일하며 물질은 그대로 존재한다(고체→액체). 그러나 ‘눅다’가 가리키는 사건에서 변화 전후의 물질이 동일하다는 점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반면, ‘고체 상태의 원물질’의 관점에서 ‘형체 소멸’이 크게 부각된다

(4장 참고). 이런 특징은 추상명사에 적용되어 [소멸화]라는 의미를 파생한다.

아울러 ‘녹다’는 두 물체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경우에도 쓰인다. 이 의미를 [융합화]라고 하자. [융합화]는 고체를 액체에 넣었을 때 고체 분자가 액체 속에 고르게 퍼지는 것을 가리킨다(2.1의 (9) ‘밀’의 예 참고).¹⁶⁾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녹다’의 의미 도식: [융합화]



이와 같은 구상명사의 의미 도식은 추상명사와 추상명사가 만나 서로 구별 없이 섞여 있는 것에도 적용된다. 즉, ‘녹다’는 복수의 추상명사와 같이 쓰여 [융합화]라는 의미로 쓰인다.

- (16) ㄱ. 有無 | 서르 노글씨 닐오디 不二라(有無 | 互融홀시 謂之不二라)
 <선종영가집언해下:102a>
 ㄴ. 므슴과 境界 흔디 노가 흔 法界 드외느니라<월인석보8:32a>
 ㄷ. 불곰과 어드움괘 섯거 노가 논호디 몬홀 고디라<남명집언해下:9a>

(16)은 ‘有無, 므슴과 境界, 불곰과 어드움괘’ 등의 추상명사가 ‘녹다’의 대상명사로 쓰였고, 대상명사는 주로 상반되는 두 개념이 복수 주어로 실현된다.¹⁷⁾ (16ㄱ, ㄴ)에서처럼 복수 주어, ‘서르, 흔디’라는 부사어, 대응 한자 ‘融’ 등을 통해서 ‘녹다’가 [융합화]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

16) 과학적으로는 ‘용해’(溶解)라고 하고, ‘용해’는 고체 분자와 액체 분자가 균일하게 섞이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실생활에서의 인지 작용을 고려하여 액체 속에 고체 분자가 잘게 퍼지는 것으로 나타내고 그림도 이와 같이 그렸다.

17) 복수 주어의 통사적 실현 양상은 2.1. 참고.

지만, (16ㄱ, ㄷ)처럼 서술어 ‘不二라’나 ‘셋거 노가 논호디 못흐-’와 같이 ‘셋-, 논호-’ 등의 동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셋거 녹-’는 둘을 분리해 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로 융합하는 과정을 드러낸 것이며, ‘논호디 못흐다’는 그렇게 융합한 것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결과를 드러낸다.

주어가 단수 명사라도 깨달음 또는 진리일 경우에는 ‘녹다’가 [융합화]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 (17) ㄱ. 이런드로 모든 듣그리 ㄹ리디 아니흐샤 흔 覺이 두려이 노ㄹ샤
 應_흐야 現_흐샤미 마근 디 업스샤다(故로 衆塵이 不_隔흐샤 一覺이 圓融_흐샤 而應_現이 無_滯矣샤다)<능엄경언해6:38a>
 ㄴ. 곱와 樂과를 둘홀 니즌 전츠로 버리는 므스미 두려이 노ㄹ니라(苦樂을 二忘故로 捨心이 圓融이라)<능엄경언해9:14a>

(17)의 ‘覺, 버리는 므슴¹⁸⁾(捨心)’은 불법이나 부처님과 관련된 것으로 ‘두려이 녹는다. ‘두려이 녹-’는 ‘원융’(圓融)을 언해한 것이다.¹⁹⁾ 부처님의 법이나

- 18) 한문 원문 ‘捨心’을 풀이한 말이다. ‘사심’은 불교에서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아니 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중생을 평등하게 보아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하는 구별을 두지 아니하는 마음’(『표준국어대사전』)을 가리킨다.
 19) 한문 원문의 ‘원융’은 언해문에서 대체로 ‘두려이 녹-’로 풀이되는데, 일부 언해문에서는 ‘두려이 녹이다’로 언해된다.

- (1) ㄱ. 므스믄 微妙를 조차 불고미 니러 두려이 노겨 비취유미 거우릇 光明이 글흔 전츠로 니르샤디 圓妙明心이라 흐 시고(心則從妙起明_흐야 圓融照了호미 如鏡之光故로 曰圓妙明心이라 흐 시고)<능엄경언해2:18a>
 ㄴ. 곱 根塵 十二 處에 브트샤 두려이 노겨 서르 비취샤(即依根塵十二處_흐샤 圓融互照_흐샤)<법화경언해6:137b>
 ㄷ. 一切入 事와 理와 性과 相과 眞과 妄과 色과 空과 眞類를 두려이 노겨 어울워(圓融和合一切事理性相眞妄色空等類_흐야)<원각경언해, 하2-2:38a>

위 예문은 한자 원문 ‘圓融’이 ‘두려이 녹다’가 아닌 다른 표현으로 풀이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한자 ‘원융’에 대한 언해 표현을 확인하여 찾은 것이다. 그러면 ‘融’이나 ‘녹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1세기 세종계획 역사자료 말뭉치에 한문 원문이 모두 입력된 것이 아니며, 한문 원문에 대한

깨달음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막힘이 없이 밝아 통하므로 원만히 융합한다.

그리하여 ‘두려이 녹-’의 선후행절에 ‘구별 없다, 통하다, 걸리지 않고 원만하다, 하나로 융합하다’ 등의 개념이 상호 순환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²⁰⁾

(18) ㄱ. 根塵識界 | 通히 智境이 ㄷ외야 ① 그지 마고미 녹외야 업서 ② 흰히 슝마차 ③ 두려이 노글썩 萬八千界라 니르니라(根塵識界 | 通爲智境ᄃᆞ야 無復限礙ᄃᆞ야 廓達圓融ᄃᆞᆫᄃᆞᆫ 故로 言萬八千界라)<법화경언해1:61a>

ㄴ. 經은 頓悟ᄃᆞ야 ① ㄹ린 거시 다 업서 ② 두려비 노가 ③ 흰히 슝마차 돌 불고미 글ᄃᆞ니라<월인석보18:48a>

(18)은 ‘녹다’ 이외에 ‘막다, ㄹ리다(礙), 슝못다’ 등이 쓰여 ‘걸리지 않고 원만하다, 통하다’ 등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때 ‘녹다’는 최고의 합일 단계인 [융합화]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앞뒤의 ‘막다, ㄹ리다, 슝못다’ 등의 동사는 ‘원융’의 의미 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원융’은 언해문에서 ‘두려이 녹다’로 풀이되지만 ‘원융’의 과정은 ‘ㄹ리다, 슝못다’ 등의 다양한 동사로 구체화된다.²¹⁾

언해문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방법은 사용하기가 어렵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두려비/두려이’를 찾아 ‘두려이 V’ 구조에 해당하는 구문의 한 문 원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20) ‘구별 없다, 걸리지 않고 원만하다, 하나로 융합하다’ 등을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 ‘녹다’의 의미를 ‘통하다’, ‘융합하다’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그러나 최고의 합일 단계인 복합적이고 난해한 불교 용어 ‘원융’을 언해문에서는 ‘두려이 녹다’로 일괄적으로 쉽게 풀어쓴 것으로 이때 ‘녹다’는 [융합화]라는 단일 의미로 이해하기로 한다.

21) 이런 특징은 ‘두려이’ 없이 ‘녹다’ 단독으로 쓰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1) ㄱ. 微妙ᄃᆞᆫ 히미 두려이 불ᄃᆞ샤 두려이 흰ᄃᆞᆫ 슝매 안히 물가 光明이 發ᄃᆞ샤 서ᄃᆞ 슝차 노가 모ᄃᆞᆫ 씨라(妙力이 圓明ᄃᆞ샤 於圓洞心에 內瑩發光ᄃᆞ샤 而交徹融攝也 | 라)<능엄경언해5:80b>

이와 같이 ‘녹다’가 복합 개념의 ‘원융’을 나타내다 보니, ‘녹다’의 의미가 [융합화] 이외에 문맥에 따라 이해되는 경우도 생긴다.

(19) ㄱ. 이젿 사르미 性으로 眞 삼고 相으로 幻 삼느니 理엔 녹거니와 이렌
 마리니(今人이 以性으로 爲眞호고 以相으로 爲幻호느니 於理則融커
 니와 於事則礙호니)<능엄경언해10:19b>

ㄴ. 비록 理 우희 노가 들히 업스나(雖然理上에 融無二호나)<금강경삼
 가해4:40a>

(19)는 ‘NP1이 NP2에 녹-’ 구조를 보이는 예이다. (19ㄱ)에서 ‘녹다’는 ‘통하다’가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녹다’가 ‘원융’이라는 복합 개념에 대응하기 때문에 ‘원융’ 안에 포함된 더 적절한 개념이 드러났다. 둘째, 현대국어에서는 ‘녹다’가 (19)에 딱 맞는 의미 용법을 가지지 않는다. 셋째, ‘NP에’를 논항으로 갖는 이와 유사한 단어로 ‘통하다’가 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녹다’의 의미를 [융합화]라는 한 의미로 이해한다.²²⁾

ㄴ. 事와 理에 노가 通호야 녹외야 두 쓰디 업스니라(事理融通호야 更無二趣ㅣ니라)<선
 종영가집언해上:12b>

(1)에서는 ‘스몯-, 못-, 통호-’ 등이 쓰였다. 앞서 ‘두려이 녹-(圓融)의 선후행절에서 보았던 동사와 차이가 없다. 그리고 (1ㄱ)의 ‘스몯차 노가’와 (1ㄴ)의 ‘노가 통호야’는 앞서 본 ‘원융’의 의미와 같다. ‘융합화’의 단계에 이르면 선후행 사건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녹-’를 기준으로 같은 개념인 ‘스몯-’와 ‘통호-’가 앞뒤에 나와도 의미는 자연스럽다. (1ㄱ)은 특히 ‘V1아 V2아 V3’ 구조의 연속동사 구성으로 쓰여, 본문의 (18ㄴ)에서 각 동사 앞에 부사가 쓰인 것과 대조적이다.

22)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원융하다(圓融-)를 ① 한데 통하여 아무 구별이 없다. ② 원만하여 막힘이 없다. ③ 『불교』 모든 법의 이치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융합하여 구별이 없다.’로 풀이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것처럼 ‘원융’의 세 의미에 맞추어 ‘녹다’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다. 후행절의 내용에 따라 ‘녹다’의 의미를 세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융’에 대한 ‘두려이 녹다’라는 풀이는 15세기 불경언해서에 한정되어 쓰이고 17세기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문 분야의 용어를 세분화하여 받아들이기 필요는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그 개념이 하나로 순환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상으로 15세기의 ‘녹다’는 ‘얼음-쇠’ 등의 구상명사에서부터 ‘의심-有無’ 등의 추상명사와 함께 쓰였다. 그리고 그 의미는 고체가 물이 되거나 액체가 되는 것을 가리켰고, 아울러 존재가 없어지거나 두 사물이 합쳐지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앞의 ‘그림’에서 보았듯이, ‘녹다’의 의미 전체에 관통하는 주요 의미 속성은 [변화]이다. [변화]는 [액체화]라는 의미에서도 도출되지만, 나머지 의미에서도 발견된다.

앞서 살핀 ‘녹다’가 갖는 개별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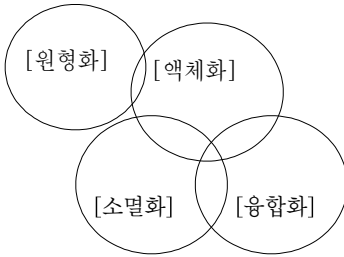
<표 2> 15세기 ‘녹다’의 의미

의미	
① 얼음류(얼음, 눈, 서리 등) 고체가 물이 되다.	[액체화]
② 쇠류 고체가 흐물흐물한 액체가 되다.	
③ 고체 상태의 물체가 얼었다가 원상태가 되다. [원형화]	
④ 부정적 개념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다. [소멸화]	
⑤ 서로 다른 성질의 물체가 섞여 하나로 합해지다. [융합화]	

<표 2>에서는 개별의미를 자연언어로 기술하고, 이를 간결하게 [액체화], [원형화], [소멸화], [융합화]로 나타냈다. 이때 ‘녹다’는 [액체화]를 기본의미로 한다. 일반적으로 의미 확장은 구상명사에서 추상명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5세기에 ‘녹다’는 ‘얼음-쇠→의심-憂’ 등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녹다’는 [액체화]를 기본의미로 하여, [소멸화]와 [융합화]라는 파생의미로 확장한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15세기 ‘녹다’가 갖는 [액체화], [원형화], [소멸화], [융합화]라는 의미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그림은 [액체화], [소멸화], [융합화]가 삼각 구도로 중심을 이루고, [원형화]가 [액체화]에서 확장된 것을 드러낸다. 또한 [액체화], [소멸화], [융합화]는 서로 공통 영역을 가지지만, [원형화]는 그렇지 않다.

<그림 4> 15세기 ‘녹다’의 의미 관계



3. ‘녹다’의 통시적 변화

이 장에서는 15세기 이후의 ‘녹다’의 통사의 의미를 살피고, 통시적인 변화 양상을 설명할 것이다. 그런데 ‘21세기 세종계획’ 어휘 역사 자료를 중심으로 ‘녹다’의 예를 찾았을 때 15세기와 20세기 전반은 그 예가 풍부하지만,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그 예가 많지 않다. 말하자면, 각 시기별 문헌의 특징이나 제약 등으로 인해 ‘녹다’의 예가 한정적이어서 통시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20세기 전반에 나타나는 ‘녹다’의 통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15세기와 비교 기술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다. 이때 당연히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예도 반영하고 참고한다.

3.1. ‘녹다’의 통사 구조 변화

15세기 ‘녹다’가 보였던 구문 형식은 20세기 전반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논항 명사의 선택 특성은 변화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NP이 녹다’ 구문에서 ‘NP’에 사람명사가 실현된 예가 보인다. 15세기

에는 사물 중심의 구상명사와 추상명사가 대부분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21. 참고). 다음은 사람명사 주어로 각각 ‘미장원 미인, 박 진사’가 나타났다.²³⁾

- (20) ㄱ. 그 옷 풀허구 미장원 미인두 다아 녹았드군.<해방의아들(염상섭),04>
ㄴ. 어째튼 박 진사는 붓잡히면 녹는 날이오.<답(한설야),272>

둘째, 15세기에는 ‘NPpl이 (서르) 녹다’ 구문에서 주어가 ‘N1N2’의 복수 명사로 제시된 예가 있었는데, 이런 구조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N1N2’ 형식의 복수 주어는 16세기부터 보이지 않는다. 이로써 ‘N1N2’ 형식의 한자어 명사는, 15세기 불경언해서라는 문헌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구조였으리라 짐작된다. 반면, 복수 주어라는 것을 보여 주는 ‘N1과 N2’ 구조는 여전히 여전하다.

- (21) 내가 소리도 안이오 소리가 나도 안이게 化하고 녹아서<짧은이의시절(나도향),31>

(21)은 ‘나와 소리가’라는 복수 주어를 상정할 수 있다. 즉, (21)에서 복수 주어는 ‘N1과 N2’라는 접속 구성으로 실현된 셈이다.

(21)의 ‘N1과 N2’ 구조는 이미 15세기에 많이 나타난 예이다. 이 구조는 (22)와 같이 16세기에도 나타나는데, 15세기 불경언해서에서 보았던 것과 다르지 않다.

- (22) 色과 空과 性이 두려이 노가 法界에 ㄱ독 ㅎ야<칠대만법,4a>

근대국어 시기에 ‘NPpl이 (서르) 녹다’ 구문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20세기

23) 18세기 필사본 고전소설에 나타난 다음 예에서 주어를 사람명사로 보면, ‘녹다’의 주어로 사람명사가 나타나는 시기는 근대국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예) 아모 정네라도 이곳의 와 그더의 풍취를 보면 엇지 녹지 아니리오<낙천등운1:19b>. 그런데 이 문장 앞에는 ‘정녀의 믿음’이 구더 부어져도 녹든 아닐가 ㅎ노라’라는 문장이 있어 ‘정녀의 믿음’을 주어로 볼 수도 있다.

전반에 복수 주어가 ‘N1과 N2’로 실현된 예가 나타나므로 ‘NPpl이 (서르) 녹다’ 구문은 통시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Ppl이 (서르) 녹다’ 구문은 20세기 전반까지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에는 ‘NPpl이 (서르) 녹다’ 구문이 아니라 ‘NPpl이 NP에 녹-’나 ‘NPpl이 NP로 녹-’로 실현되기 때문이다.²⁴⁾ 즉, 20세기 후반에는 ‘NP에’나 ‘NP로’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23) ㄱ. 비록 부피와 크기와 선과 색이 그 하나 속에 녹아 있는 형태 이전의 물(物)이며, <사람의 아들(이문열), 239>
 ㄴ. 바람 속에는, 신선한 햇볕과 ... 저온(低溫), 그리고 ... 소금기, 그런 것들이 이상스레 한데 어울리면서 녹아 있었다. <무진기행(김승옥), 223>
 ㄷ. 다만, 온 배에서 일어나는 갓가지 소리가 하나로 녹아, 아득한 웅성 임처럼 들렸다. <광장(최인훈), 090>

(23ㄱ~ㄴ)은 ‘NPpl이 NP에 녹-’, (23ㄷ)은 ‘NPpl이 NP로 녹-’ 구문을 보인다. 또 (23ㄱ, ㄴ)은 ‘녹-’가 ‘-아 있-’와 실현된 것을 볼 수 있다.²⁵⁾

셋째, ‘NP1이 NP2에 녹다’ 구문에서 ‘-에’가 ‘도구’로 쓰인 예를 찾을 수 있다. 15세기에는 ‘-에’가 ‘장소’의 의미역으로 쓰였고, ‘도구’의 의미역은 ‘NP이 더운 뜨레 눈 녹듯 흐-’와 같은 비유 표현에만 나타났다는 점이 다르다 (2.1. 참고).

- 24) ‘NPpl이 NP에 녹다’는 20세기 전반에도 나타난다. 예) 형식의 정신에는 슬픔과 괴로움과 욕망과 깃쁨과 사랑과 미워함과 모든 정신작용이 원통 한데 모히고 한데 녹고 한데 뭉치어 무엇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가 업섯다. <무정(이광수), 322>. 이때 ‘NP에’는 장소 의미역으로 해석된다.
 25) 본고에서는 ‘녹다’가 단독으로 쓰인 예문을 중심으로 ‘녹다’의 통사의미를 고찰하고, 필요한 경우 ‘녹아 V’ 구성을 살핀다. 따라서 (23)의 ‘녹아 있-’는 ‘녹아 V’ 구성을 보이는 구이므로 본문의 논의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3)에서 ‘녹아 있-’는 ‘녹다’가 보이는 구조적 또는 상적 변화와 관련된 현상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므로 ‘녹-’ 구문에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현대국어에서 ‘녹다’가 [융합화]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대체로 ‘녹아 있-’가 자연스럽다. 예) ‘... 그 늙은 대학생의 표정에는 ... 자족함이 끝이끝대로 녹아 있었다. <김승의시간(김원우), 429>.

- (24) ㄱ. 혼 사람이 말째 소금을 식고 갈지 말이 ... 큰 너를 만나 ... 쓰러졌더니 소금이 물에 녹아서²⁶⁾ 짐이 얼마큼 가빴을지라<요지경,022>
- ㄴ. 그 편지는 땀기가 젖고 살의 온기에 녹아서 녹신녹신하였다.<적도(현진건),087>
- ㄷ. 더우기 개성유수 신수겸(愼守謙)의 머리는 벌써 신윤무의 손에 녹았을 것이요.<금삼의피(박종화),398>
- ㄹ. 아까 그 비통한 빛은 주기에 얼마쯤 녹은 듯도 싶다.<모란꽃필때,084>
- ㅁ. 여러 해 속병에 녹은 사람 같다.<삼대(염상섭),230>

(24)에서 각각 ‘물에, 살의 온기에, 신윤무의 손에, 주기에, 속병에’ 등은 ‘소금, 그 편지, 머리, 비통한 빛, 사람’ 등이 ‘변화’하는 데 ‘도구’의 역할을 한다. (24ㄱ, ㄴ)과 같이 고체 상태의 구상명사는 ‘물’이나 ‘온기’와 같은 습기나 열로 인해 변화가 나타난다. 그런데 (24ㄹ, ㅁ)처럼 ‘비통한 빛’이나 ‘사람’은 ‘주기’나 ‘병’과 같은 추상명사로 인해 변화가 나타난다. 이 경우 ‘NP1’은 고체 상태의 구상명사를 비롯해 추상명사나 사람명사가 다 가능하다.²⁷⁾

반면, 고체(또는 기체)와 액체의 융합이 ‘NP1이 NP2에 녹다’ 구문으로 실현된 예는 20세기 후반에 보이는데(25ㄱ), 문헌상의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늦은 시기에 나타난다. 그리고 (25ㄴ)은 추상명사가 구체적 공간에 퍼져 있음을 드러낸다.

- (25) ㄱ.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 아닌 공기 중의 산소를 호흡하며 사는 동물이었다.<해일(한승원),193>
- ㄴ. 아직도 해가 있어서 불을 켜지 않은 방안에는, 땅거미질 무렵의 은근한 붉은 기운이 알릴락말락 녹아 있었다.<광장(최인훈),116>

26) ‘소금이 물에 녹-’라고 할 때 ‘물에’는 도구역과 장소역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짐으로 싣고 있던 소금이 물에 닿아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의미이므로 ‘물에’는 도구역에 가깝다.

27) 현대국어에서 ‘NP1이 NP2에 녹다’ 구문에서 도구의 의미역으로 쓰이는 ‘NP2’는 생략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예: 소금이 (열에) 녹다), 이 예문들은 ‘NP1이 (NP2에) 녹다’로 보고, ‘NP이 녹다’나 ‘NP1이 NP2에 녹다’를 나누어 설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15세기와 달리 비유 표현이 아닌 문장에서, 도구의 의미역 자격을 갖는 명사가 ‘-에’로 실현되었음을 언급한 것이다.

넷째, 18세기에 나타난 ‘정신을 빼앗기다’라는 의미는 ‘NP이 녹다’ 구문으로 쓰였는데, 20세기 전반에는 ‘NP1이 NP2에게/에 녹다’ 구문이 보인다.²⁸⁾

(26) 아모 정네라도 이곳의 와 그디의 풍치를 보면 엇지 녹지 아니리오<낙천등운1:19b>

(27) ㄱ. 그이에게 제가 왜 녹아요. 저마다 녹는 이가 다 다른 게예요. 어테 제가 녹는다구 남도 녹을 줄 아나베, 흥.<적도(현진진),101>

ㄴ. 숭배하는 미인의 숨씨 있게 둘러대는 말숨씨에 외국 청년들은 아주 녹았다.<삼대(염상섭),106>

(26)에서 ‘NP2에’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표면적으로 실현된 예를 중시하여 ‘NP이 녹다’ 구문으로 보았다. (27)에서는 ‘NP2에’의 명사가 유정명사인지 무정명사인지에 따라 조사 ‘에게’와 ‘에’로 달리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8) 19세기의 예는 찾지 못하여, 통사 구조가 변하였는지 그대로인지 말하기 어렵다. ‘-에게’ 대신 ‘한테’가 쓰이기도 한다. ‘-에게’를 대표로 삼았다.

<표 3> ‘눅다’의 통사 구조 변화

구문 \ 시기	15세기	20세기 전반
① NP이 눅다	NP: 구상·추상·사물명사 등 (단, 사람명사 제외)	NP: 구상추상사물 사람명사 등
② NPpl이 (서르) 눅다	NPpl: ‘N1과 N2와’ 또는 ‘N1N2’ 등	NPpl: ‘N1과 N2’ 등
③ NP1이 NP2에 눅다	NP1:NP2: 추상명사 (주로 불교 개념) *NP2: ‘장소’ 의미역	①NP1: 고체, NP2: 액체(또는 NP1: 구상추상사람명사, NP2: 구상추상명사 등) *NP2: ‘도구’ 의미역 ②NP1: 사람, NP2: 사람·사물 (NP2가 사람일 때: ‘NP1이 NP2에게 눅다’)

3.2. ‘눅다’의 의미 변화

20세기 전반에는 ‘눅다’의 예가 많아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대상역 명사가 보인다. 이에 15세기에 보지 못했거나 15세기와 차이가 드러나는 예를 중심으로 의미 특징을 기술한다. 그리고 15세기와 20세기 전반까지 나타난 의미를 통틀어 ‘눅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보여 줄 것이다.

먼저, ‘눅다’는 통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눈에 띈다. 첫째, [소멸화]라는 의미는 가장 많은 명사 논항으로 확장된다. 15세기에는 대상역 명사로 부정적 개념이 주로 쓰였던 것과 달리 20세기 전반에는 긍정적 개념도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 (28)은 ‘균즈의 도’나 ‘결심’이라는 긍정적 개념이 쓰인 예로, (28ㄱ)은 19세기 예, (28ㄴ)은 20세기 전반의 예이다.

- (28) ㄱ. 쇼인의 도가 길고 군주의 도가 녹아서 장춘 어느 디경 이렇지 아니 못하느니라<독립신문 1898년 3월 8일 화요일 제3권 제28호>
 ㄴ. 이때 갑작이 서리같이 얼었던 영순의 결심이 스프르 녹으면서 뜨거운 눈물이 쭈루루 내솟았다.<미완성(주요섭),273>

아울러 ‘미움, 화, 슬픔’ 등의 감정이나 ‘마음’ 등과도 어울려 쓰이기 시작한다.

- (29) 그는 자기 어머니가 말할 수 없이 원망스러웠다. 자기를 돈에 팔아 그것으로 먹고 입고 지내고 또 자기를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자기 어머니가 미웠다. ... 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 자기 가슴은 따뜻한 봄볕에 눈 슬 듯이 녹는 듯하였다.<어머니(나도향),089>

(29)는 20세기 전반의 예로 ‘감정이 누그러지다’라는 의미이다. (29)는 ‘그(영숙)’가 어머니에게 ‘원망, 미움’을 느끼다가 어머니의 말 한 마디에 그러한 감정이 누그러지거나 풀어지는 것을 드러낸다.

또한 (30)에서처럼 ‘녹다’가 ‘연기(煙), 돈, 나라’ 등의 구상명사와 함께 쓰인 것도 특징적이다. 15세기에는 ‘의심, 業障’ 등의 추상명사가 쓰인 것과 다르다.

- (30) ㄱ. ...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지빛 연기가 밤 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모밀꽃필무렵(이효석),299>
 ㄴ. 저간에 왕리 로비와 옥바라지며 각처 정비 청전에 빅 만 원이 다 녹아 필경 부족되고<철세계,16>
 ㄷ. 넓고 넓은 오대주 안에 멸망을 당한 일찍 수습여 나라가 다 이러한 케홀에 들어가 녹은지라<월남망국소,75>

그리고 사람명사가 주어로 쓰이는 예가 많아진다.

- (31) ㄱ. 그렇게 혈색 좋던 조부의 얼굴이 불과 한 달지내에 저렇게도 변하였을까 싶다. 누렇게 뜨고 꺼먼 진이 더께로 앉은 것은 고사하고 그 멀경게 누런 빛이 살 속으로 점점 처져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이 심상하지 않아 보였다. 여러 해 속병에 녹은 사람 같다.<삼대(염상섭),230>

ㄴ. 어째든 박 진사는 붓잡히면 녹는 날이오.<탐(한설야),272>

(31)은 표면적으로 사람명사가 주어로 쓰였으나, 구체적으로 (31ㄱ)은 사람의 몸(건강)이나 형편, (31ㄴ)은 사람의 목숨을 가리킨다. 이때 ‘녹다’는 [소멸]의 속성을 바탕으로 각각 ‘기운이 떨어지거나 형편이 나빠지다’, ‘목숨이 끊어지다’라는 부정적 변화의 결과를 나타낸다.

둘째, [원형화]라는 의미는 18세기에 대상역 명사를 추가하고, 20세기 전반에는 훨씬 더 많은 예와 함께 쓰인다.

(32) ㄱ. 地未化透 싸히 스몹 녹지 못흐다 <한청문감1:31b>, 凍肉化了 언 고기 녹아 맛 업다<한청문감12:60a>

ㄴ. 겨우내 얼었던 땅은 모두 녹아서<젊은그들(김동인),232>, 어렸든 몸은 차츰 녹고<홍염(최서해),083>, 계속이가 얼었던 뺨이 녹아서 발그스름해진 얼굴을 쳐들고<영원의미소(심훈),042>

(32ㄱ)은 18세기, (32ㄴ)은 20세기 전반의 예이다. ‘녹다’의 대상역 명사로 ‘땅, 언 고기, 몸뺨’ 등이 쓰였다. 땅과 신체 그리고 수분 함유 물체가 [원형화]의 대상역 명사로 가능하다.

셋째, ‘녹다’가 [현혹화]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이때 ‘녹다’는 ‘어떤 대상에게 몹시 반하여 정신을 빼앗기다’라는 의미이다. (33)은 20세기 전반의 예인데, ‘NP1이 NP2에게 녹-’ 구문을 보인다.

(33) 정말 그래 여해란 이에게 녹아서 병원에를 조석 대령을 한다구<적도(현진건),102>

넷째, 음식이 대상역 명사로 나온 예가 눈에 띈다.²⁹⁾

29) 음식이 ‘녹다’와 함께 쓰인 예는 20세기 전반에 나타나지만, 이미 15세기에도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음식이 ‘노가디다’와 쓰인 예가 있기 때문이다. 예) 須隨는 허다 흐논 빠디오 ... 이베 들면 노가디는니라<월인석보7:42a>. 이 예는 ‘수타미’(須陔味)에 대한 설명이다. ‘수타미’라는 음식이 ‘노가디’와 함께

- (34) ㄱ. … 밤 대추가 여기저기 빠져 나온 백설기. 한번 덩석 물어 떼이면
입안에서 그대로 스르르 녹을 듯 싶다.<떡(김유정),073>
ㄴ. … 맛있는 김치에, 설설 녹는 입쌀밥으로, 배가 불룩하도록 … <소년은자란다(채만식),074>

실제로 ‘백설기’나 ‘입쌀밥’이 입에서 ‘녹’지는 않는다(부스러지거나 으깨질지 인정). 고체 상태의 어떤 음식이 입 안에서 스르르 ‘녹’는 경우는 ‘아이스크림, 얼음’ 등의 ‘얼음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음식이 입 안에서 저절로 ‘녹’는다는 것은 음식이 ‘부드럽고 맛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녹다’가 [소멸]이라는 의미 속성으로 말미암아 대체로 부정적 의미를 지닌 것과 달리, 이 경우는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녹다’는 15세기 [액체화][소멸화][융합화][원형화]라는 의미를 바탕으로 통시적으로 대상역 명사를 확대하면서 개별의미를 추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혹화]라는 의미는 근대국어 시기에 새롭게 나타나 현대국어까지 대표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추가 의미로 설정할 만하다. 이로써 명사의 성격과 출현 시기, 일반적인 의미 확장 원리 등에 비추어 ‘녹다’의 의미와 의미 확장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녹다’의 의미 확장 양상

[액체화] 얼음·쇠→음식물

[원형화] 땅(흙)→몸

[소멸화] ① 의심(부정적 개념)→질개(긍정적 개념)·감정

② 사람(기운→목숨)→돈·기체(구상명사)

[융합화] 고체와 액체의 혼합→추상 개념의 혼합

[현혹화] 사람(마음·정신)

쓰여, 음식이 맛있고 부드럽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노가디다’는 본동사 ‘녹다’와 ‘디다(落)’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기 때문이다(함희진 2008, 신은수 2016).

4. ‘녹다’의 의미 특성

여기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첫째, ‘녹다’가 지닌 의미의 타당성을 증명한다. 구체적으로 [액체화], [소멸화]라는 의미에 집중하는데,³⁰⁾ 통시적으로 이 의미들이 문헌에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핀다. 이때 문맥이나 ‘노가 V’ 구성 그리고 비유 표현 등을 고찰한다. 이로써 특히 ‘녹다’가 [소멸]의 속성을 지닌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2.2. <그림 2> 참고). 둘째, ‘녹다’가 지니는 의미 속성을 유의 관계에 있는 동사와 비교하여 기술할 것이다.

4.1. ‘녹다’의 [액체화]와 [소멸화]

‘녹다’가 갖는 [액체화]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고체가 녹은 상태를 가리키는 ‘물’(또는 ‘물이 되-’)이 문장에 실현된 것을 보고 추출할 수 있다. ‘녹다’가 고체의 액체화를 의미하는 예는 문헌 자료에서 간헐적으로 발견된다. (35)는 17세기, (36)은 20세기 전반의 예이다. 이 예들에서는 ‘눈·얼음, 구라·쇠, 디룡’ 등의 고체가 ‘녹아 ‘물이 되었다.

- (35) ㄱ. 臘雪水 섯들 남향 뻐 온 눈 노근 물<동의보감1:15a>
ㄴ. 출히 구리 노근 물로 이베 브슬디언땡(寧以洋銅로 灌口 | 언땡)<선가 귀감언해(상문각),53b>
ㄷ. 디룡즙은 … 산 디룡을 소곰 터 노가 물이 되거든 머그라(地龍汁 … 生地龍塩化爲水取飲之)<벽은신방,8a>

30) [원형화]나 [융합화]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것은 이들은 [액체화]나 [소멸화]처럼 문맥이나 비유 표현 등을 통해 구체화하기 어렵고, 실제로 통시적인 자료를 합쳐도 그 특징을 언급할 만한 예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녹다’가 [융합화]라는 의미로 쓰이는 ‘노가 눈호-, 노가 통호-’ 등은 앞서 2.2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으므로 제외하였다.

- (36) ㄱ. ... 얼음이 녹은 물이 아득히 괴었다.<영원의미소(심훈),163>
 ㄴ. 쇠 녹은 물을 휘휘 저어<철세계,24>

또 [액체화]라는 의미는 ‘노가 V’ 구성의 후행 동사를 보고 알 수 있다. ‘노가 V’ 구성의 후행 동사는 ‘녹다’가 가리키는 사건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녹다’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37)에서 ‘녹다’의 후행 동사 ‘젓-, 흐르-’ 등은, 녹은 후의 결과 상태가 ‘액체’라는 것을 드러낸다.³¹⁾

- (37) ㄱ. 樓엿 누는 城에 노가 저젓고(樓雪融城濕)<두시언해(초간)6:15a>
 ㄴ. 洩해는 雨雪 | 노가 흐로미 더으듯다(山添雨雪流)<두시언해(중간) 13:27a>³²⁾

이후 20세기 전반에 ‘녹아 흐르-’가 나타난다.

- (38) ㄱ. 대궐안 전각 첨아 끝에선 해빛에 눈 녹아 흐르는 락수 소리가 한가로
 있다.<전야(박종화),089>
 ㄴ. 티양의 광열(光熱)이 불보다 더 뜨거워 돌과 쇠가 녹아 흐를 뜻흐야
 <홍도화(하),1>

위의 예들을 통해 ‘녹다’가 고체의 액체화를 의미하는 경우는 주로 ‘눈, 얼음, 쇠, 돌’ 등의 얼음류나 쇠류 명사가 대상역 명사로 쓰일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멸화]라는 의미도 비슷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멸화]라는 의미

- 31) 합성어나 보조용언 구성은 제외하였다. 합성어 ‘노가V’ 유형의 동사는 후행동사의 의미보다 제3의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보조용언 구성에서 후행동사는 본동사로서의 어휘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15세기 ‘노가디다, 노가가느리다’ 등을 합성어로 보았고(신은수 2016 참고), 20세기 전반의 ‘녹아나다, 녹아들다’ 등도 현대국어사전에 단어로 등재되어 있어 제외하였다. 그리고 ‘노가(녹아) 가다, 녹아 버리다’ 등은 보조용언 구성으로 보아 제외하였다.
- 32) 초간본 13권을 확인할 수 없어 중간본의 예를 실었다. 『두시언해』의 성격상 초간본에서도 ‘노가 흐르-’가 쓰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에서는, ‘녹다’가 [액체화]를 기본으로 하지만, 고체라는 원물질의 ‘소멸’에도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 준다.

(39) 솥불에 술와 빅번이 노가 다 물 되어 업거든(火燒令醬汁盡)<언해두장 집요下:64b>

(39)는 17세기의 예인데, 고체라는 원물질의 ‘소멸’을 드러낸다. (39)에서는 ‘빅번’이 액체가 되고(‘물 되-’), ‘빅번’이라는 고체 덩어리가 남아 있지 않는(‘없-’)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실은 ‘노가 V’ 구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0) ㄱ. 渙然은 어름 노가 헤여덜씨라<선종영가집언해上:47b>
ㄴ. 業障과 惑障이 노가 업서 慧身을 일워(業障惑障이 而銷亡호야 成就 慧身호야)<원각경언해서:62a>

(40)의 ‘노가 헤여디-, 노가 없-’에서 ‘헤여디-, 없-’는 ‘어름, 業障·惑障’이라는 원물질의 ‘소멸’에 가까운 의미 속성을 지닌다. (40ㄱ)에서 ‘녹-’는 얼음이 [액체화] 된다는 의미를, (40ㄴ)에서는 ‘녹-’가 [소멸화]를 드러낸다.³³⁾ 그리고 ‘녹-’ 뒤의 ‘헤여디-’나 ‘없-’는 ‘얼음, 業障·惑障’이라는 물질의 ‘소멸’을 드러낸다.

20세기 전반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나타난다.

(41) ㄱ. 얼음이 한뼀한뼀 녹아 없어지고 그 대신 찰랑찰랑하는 파란 물 들레가 넓어 가는 것이 신통하였다.<무영탑(현진건),163>
ㄴ. 그런데 이런 어두운 근심과 초조가 봄이 온다고 녹아 없어질 아무런 증조도 …<미완성(주요섭),126>

33) (40ㄴ)의 ‘業障’이나 ‘惑障’은 서로 융합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사라져야 ‘慧’를 이룰 수 있는 것이므로 이때 ‘녹다’는 ‘없어지다’라는 의미에 가깝다. 대응한자도 ‘銷’로 [융합화]의 의미가 아니다. 2.1에서 ‘NP_{pl}’이 주어로 나올 때 ‘녹다’는 [융합화]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지만 접속 구성의 성격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41ㄱ)에서 ‘녹아 없어지-’의 주어는 ‘얼음’이다. 얼음이 녹은 ‘물’이 ‘없어지-’의 주어가 아니라는 것은 후행절의 ‘파란 물 둘레가 넓어 가-’를 통해 알 수 있다. (41ㄴ)의 ‘근심과 초조’는 부정적 개념으로 15세기 ‘녹다’가 [소멸화]라는 의미로 쓰일 때의 대상역 명사의 성격과 일치한다.

[소멸화]는 비유 표현과 함께 분명히 드러난다. ‘녹다’가 쓰인 비유 표현은 15세기부터 나타나는데, 궁극적으로 부정적 개념의 소멸을 전달할 때 쓰인다.

- (42) ㄱ. 이마타 피흔 業이 더운 브레 눈 녹듯흐야 아니 오라 다 無生忍 아
로물 得흐리라(如是積業이 猶湯銷雪흐야 不久皆得悟無生忍흐리라)
<능엄경언해7:55a>
- ㄴ. 이 곁흔 뜬 塵과 器世間엿 모든 變化相이 더운 브레 어름 녹듯흐야
念을 應흐야 無上知覺이 일리라(如是浮塵과 乃器世間엿 諸變化相이
如湯銷氷흐야 應念化成無上知覺흐리라)<능엄경언해4:117a~b>
- ㄴ'. 어즈러운 시르물 싸혀 업게 호물 어름 녹듯흐는다(撥煩去氷釋)<두
시언해(초간)17:14a>

(42)는 ‘NP이 더운 브레 눈/어름 녹듯흐-’ 구문을 보인 예이다(‘NP이 어름 노곶 곁흐-’는 2.1. 참고). 이 구문에서 ‘눈, 어름’ 등의 얼음류 명사는 보조 관념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원관념은 ‘業, 塵變化相’ 등의 추상명사이다. 이 구조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는 추상명사 ‘業, 塵變化相’ 등의 소멸로, ‘더운 브레 눈/어름 녹-’는 물리적 사건을 통해 구상화하고자 한다. 이때 ‘더운 브레 눈/어름 녹-’가 가리키는 사건은 고체의 액체화가 아니라 고체의 ‘형체 소멸’이 부각되어야 이런 비유가 가능하다. 15세기에는 (42ㄱ, ㄴ)에서처럼 ‘녹듯흐-’로 쓰여 ‘業, 塵變化相’ 등의 명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동사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42ㄴ')에서는 ‘싸혀 업게 흐-’가 드러나 있다. ‘싸혀 업게 흐-’는 ‘눈/어름 녹듯흐-’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없-’임을 짐작하게 한다.

20세기 전반에는 ‘NP이 눈/얼음 녹듯 V-’ 구문이 나타난다. 이 구문에서 ‘NP’라는 추상명사의 서술어가 ‘V’로 나타나는데, ‘V’는 다음과 같이 ‘사라지-, 풀러지-’ 등이 쓰인다.

- (43) ㄱ. 아직껏 연언이를 피하려던 생각이 눈 녹듯 사라진 인호는, <짧은그들 (김동인),43>
 ㄴ. 흥선의 한마디에 만좌는 비로소 의아한 의심이 어름 녹듯 풀려졌다. <전야(박종화),233>

(43)에서는 ‘생각이 사라지’고 ‘의심이 풀려지’는 사건이 ‘눈/어름 녹듯’ 하였다. 이는 ‘눈/얼음 녹-’가 ‘눈/얼음’이라는 고체 덩어리의 소멸을 부각해야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정적 개념의 소멸을 드러낼 때 통시적으로 ‘눈/얼음’이 비유 표현에 주로 쓰인다.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감정이나 정신 상태를 나타낼 때에는 ‘뻐/간장이 녹-’와 같이 신체 일부나 장기 등이 쓰이는 것과 구별이 된다.³⁴⁾

- (44) ㄱ. 그만 또 다시 이별을 하게 되니 일천 간장이 다 녹는 듯하겠지요. <다정불심(박종화),067>
 ㄴ. 종시 소식이 영절하니 촉말 오장이 녹는 듯하야 다시는 더 참을 수가 업는지라<행락도,102>
 ㄷ. 강동지 마누라가 처음에는 근이 녹는 드시 겁이 너더니<귀의성下:63>
 ㄸ. 생이 미인을 대하니 정신이 어리고 뻐가 녹는 듯한지라<임화정연,442>

4.2. ‘녹다’의 의미 속성

통시적으로 ‘녹다’는 [변화] 속성을 지닌 동사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녹다’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과 비교하여 [액체화]라는 의미를 갖는 거의 유일한 동사이다. 15세기에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³⁵⁾

34) 19세기부터 ‘간장이 녹다’라는 관용 표현이 많다. 예) 네 우름 소리 당부의 일천 간당이 다 녹는다 이리 익를 쓰고 엇지후리<남원고사,27a~27b>.

35) 이 목록은, 황국정(2009: 393)에서 ‘NP이 V’ 구조를 보이는 ‘단순 변화 대상 자

- (45) ‘끓다, 녹다, 흐르다, 물어디다, 부풀다, 분다, 붓다, 빠디다, 식다, 얼다, 여위다, 지다(肥), 프다(開), 프리디다, 헤어디다, ...’

이 예들 중 문헌을 통해서만 ‘프리디다, 풀리다’ 등 일부 예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³⁶⁾ 즉, [액체화]라는 의미와 유의 관계에 있는 어휘는 아주 한정적이다. 나머지는 단단한 것이 무르게 되거나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등의 변화를 나타내,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가 되는 것과 거리가 있다.

둘째, ‘녹다’는 [변화] 속성 중 [소멸]이라는 의미 특성이 부각되는 동사이다. ‘녹다’가 [액체화]를 기본의미로 할 때, 물질의 상태는 변하지만 실제로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로 존재한다. 그러나 ‘고체 상태의 원물질’의 관점에서는 형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인식한다(2.2. 참고). 이런 [소멸]이라는 속성은 [소멸화]라는 파생의미나 비유 표현 등에 적용된다.

15세기 ‘녹다’의 유의어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 중 [소멸]의 속성을 지닌 동사들이 많다. ‘흐르다, 붓다, 얼다, 스라디다, 삭다, 석다, 스러디다, 슬다, ...’ 등을 들 수 있다. 이 동사들은 ‘녹다’에 대응하는 한자어 ‘消, 洋, 化’ 등을 참고하거나 ‘녹다’의 대상역 명사와 어울린 동사를 찾는 방식으로 찾았다.

- (46) ㄱ. 돌히 ... 뿔오 붓아디니라<능엄경언해7:88b>

ㄴ. 丈夫 | 저근 金剛을 머그면 내종내 삭디 아니호야(丈夫食少金剛 終

동사’로 열거한 예 중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 36) 15세기 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었고, 16-17세기 문헌에 ‘프리디-’가 나타나는 예가 있다. (1ㄱ)은 16세기, (1ㄴ)은 17세기의 예이다.

- (1) ㄱ. 헤어듀미 어름 프리뉘 ㄱ트며(渙然氷釋호며)<번역소학8:37a>

ㄴ. 어름이 문득 프리더 고기 이셔 뛰어나거늘(氷忽解有魚躍出)<동국신속삼강행실도孝3:6b>

현대국어에서 ‘풀리다’는 ‘얼었던 것이 녹다’(『표준국어대사전』)라는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기본의미는 아니다. 이밖에 ‘해빙(解氷)’과 같은 한자어를 들 수도 있지만 ‘녹다’에 상응하는 ‘기본어휘’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竟不銷<원각경언해,상1-1:92a>

ㄷ. 한 疑心이 다 프리디니라<월인석보25:11a>

ㄹ. 듣즈뵙 사르미 業障이 스리디여<석보상절9:2a>

셋째, ‘눅다’는 [소멸]의 속성을 지닌 동사와 비교하여 역설적이게도 [생성] (융합)의 의미를 더 갖는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스라디다, 슬다, 스리디다, ...’ 등의 대부분의 소멸 동사들은 소멸 의미에 그치지만 ‘눅다’는 ‘생성’의 의미를 더 지닌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15세기 ‘눅다’의 통사의 의미를 살피고, 통시적 변화를 기술하였다. 특히 15세기 ‘눅다’의 의미 관계, ‘눅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밝히고, ‘눅다’가 갖는 의미 특성을 기술하였다.

‘눅다’는 15세기부터 ‘NP이 눅-’, ‘NPpl이 (서르) 눅-’, ‘NP1이 NP2에 눅-’ 구문을 보인다. ‘눅다’가 보이는 구문 형식은 역사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 ‘NP이 눅-’ 구문에서 대상역 명사는 사물이나 추상명사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20세기 전반에는 사람명사가 쓰이는 예가 나타난다. 둘째, ‘NPpl이 (서르) 눅-’ 구문에서 15세기에 복수 주어 명사가 ‘N1N2’와 같이 대등하게 나열된 구조로 드러나는 예가 있었다. 그리고 ‘NPpl’은 대체로 ‘N1과 N2’로 나타난다. 셋째, 15세기에 ‘NP1이 NP2에 눅-’ 구문에서 ‘NP1’과 ‘NP2’는 추상명사가 대부분이다. 이때 ‘-에’는 장소의 의미역으로 해석된다. 20세기 전반에는 ‘NP1이 NP2에 눅-’ 구문에서 ‘-에’가 도구의 의미역으로 해석되는 예가 나타난다. 넷째, 20세기 전반에 ‘NP1이 NP2에게 눅다’ 구문이 보이는데, ‘NP1’과 ‘NP2’는 사람명사로 한정된다.

‘눅다’는 [액체화]를 기본의미로 한다. 여기에 [소멸화], [융합화], [원형화]

라는 의미가 더 있는데, 18세기에는 [현혹화]라는 의미를 추가한다. ‘녹다’는 역사적으로 논항 명사의 확장과 함께 개별의미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녹다’는 [액체화]라는 의미로서는 거의 유일한 단어이며, [소멸화]라는 의미는 고체 물질의 [소멸]이라는 기제가 작용해서 나타난 것이다. 또 ‘녹다’는 1차적으로 [변화]라는 의미 속성을 갖는데, 여기에 [소멸], [생성]이라는 의미 속성을 더 갖는다. 흔히 ‘녹다’는 상태 변화 동사나 [소멸]의 속성을 지니는 동사와 유의 관계를 보인다.

본고는 형태 변화 없는 어휘 ‘녹다’에 대해 통사의미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개별 어휘사 연구에 충실하고, 어휘사 연구에서 보기 힘든 의미 관계를 설명하여 어휘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였다. 논항의 선택 특성에 주목하고, 의미 도식을 통해 의미를 명시화하며, 문헌 중심의 통시적인 변화를 통해 개별 어휘의 의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 방법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점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개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문웅(2004), 『역주 구급방언해』 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金完鎭(1973), 「國語 語彙 磨滅의 研究」, 『震檀學報 35』, 진단학회.
- 김태곤(2002), 『중세국어 다의어와 어휘변천』, 박이정.
- 김태곤(2008), 『국어 어휘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 남경완(2005), 『국어 용언의 의미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남기심(1995), 「어휘 의미와 문법」, 『東方學志 88』, 연세대 국학연구원.
- 남승호(2007),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 민현식(1995), 「국어 어휘사의 시대 구분에 대하여」, 『국어학 25』, 국어학회.
- 서상규(2001), 「어휘사 연구와 국어정보화」, 『한국어학 14권』, 한국어학회.
- 신은수(2016), 「15세기 ‘V아디다’ 기원의 합성어 ‘녹아지다」, 『국어학』 80, 국어학회.
- 심재기(1997), 「국어 어휘의 구조와 특징」, 『국어사 연구(전광현·송민 선생 화갑 기념 논총)』, 태학사.
- 劉昌惇(1973), 『語彙史研究』, 선명문화사.
- 이광호(1995), 『類義語 通時論』, 이회.
- 이기동(1992), 「다의 구분과 순서의 문제」, 『새국어생활 제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 李賢熙(1994), 『中世國語構文研究』, 新丘文化社.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 장세경(1997), 『역주 능엄경언해』 제5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조경순(2014), 『동사의 의미 구조와 문장 구성 연구』, 태학사.
- 조남신(1993), 「다의어의 어휘의미 계층과 의미배열」, 『인문과학 제 69-70 합집』,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함희진(2006), 「합성동사와 합성형용사의 어휘사적 연구」, 『한말연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권』, 한말연구학회.
- 함희진(2008), 「“V1-어+지다”형 합성동사의 형성과 기원」, 『한국어학』 41, 한국어학회.
- 함희진(2010), 『국어 합성동사의 형성과 발달-‘V1-어+V2’형 합성동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허 응(1975), 『우리 옛말본-15세기 국어 형태론』, 샘 문화사.
- 홍사만(2003), 『국어 어휘의미의 사적변천』, 한국문화사.
- 홍재성 외(1997),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두산동아.
- 황국정(2009), 『국어 동사 구문구조의 통시적 연구』, 제이앤씨.

<사전>

-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 南廣祐(1997), 『古語辭典』, 敎學社.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劉昌惇(1964), 『李朝語辭典』, 延世大學校 出版部.
-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Abstracts】

A Diachronic Study on the verb 'nokta'

Shin, Eunsu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syntax structure and meanings of 'nokta' in the 15th century and to examine its syntax structure and meanings diachronically. Also this paper is to examine relations of its meanings in the 15th century, and extension of its meanings, a characteristics of meaning.

'nokta' basically has a syntax structures of 'NP-i nokta', 'NPpl-i (seoreu) nokta', 'NP1-i NP2-e nokta'(NP1 · NP2: abstract noun) in the 15th century. By the way 'NPpl' appears in form of 'N1N2' on 'NPpl-i (seoreu) nokta' in the 15th century. Also new sentence structure, 'NP1-i NP2-ege nokta'(NP1 · NP2: human noun) appears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NP' of 'NP-i nokta' is human noun in this time.

'nokta' has the four meanings of [become a liquid], [disappear], [become one], [keep its original form] in the 15th century. 'nokta' has many senses with this meanings as the center. It has more meaning of [be seduced] in the 18th century. And 'nokta' has the semantic features of [disappearance] and [change].

key words: nokta, 'NP-i nokta', 'NPpl-i (seoreu) nokta', 'NP-i NP-e nokta', [become a liquid], [disappear], [become one],

[change], [disappearance]

이 논문은 2017년 6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7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7월 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